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학습몰입과 리라밸의 차이

정 채 윤¹ · 홍 아 정² · 이 주 연³

¹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²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³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연구전담교수

Latent Profiles of Graduate Student' Social Support: Differences in Learning Engagement and Research-Life Balance

Jeong Chae-Yun¹ · Hong Ah Jeong² · Lee Juyeon³

^{1,2,3}Chung-Ang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latent sub-groups of graduate students' social support measured by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and career network,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research-life balance and learning engagement as distal outcomes across the latent sub-groups. **Method:** 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adopted to find the latent sub-groups using 488 graduate students' responses in the A university of a metropolitan area. For the distal outcome variables, BCH in Mplus was us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hree-profile model was considered to be the best model. The latent profiles were characterized by the levels of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of graduate students: low-level, moderate, and high-level. In comparing the distal outcome, learning engagem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high-level and moderate-level social support profiles as well as the moderate and low-level social support profiles. It indicated that graduate students could engage in learning when they felt they had more social support. In addition, RLB (Research-Life Balance) significantly differed between the moderate and high levels of profiles. The magnitude of mean difference in RLB, however, was negligible.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graduate students learning and life through graduate school' policy.

Key words: graduate student,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learning engagement, RLB(Research-Life Balance)

Corresponding Author: Lee, Juye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jyeonlk@cau.ac.kr (Current addres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7, Gyohak-ro, Deoksan-eup,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e-mail: jyeonlk@kedi.re.kr)

I. 서론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은 새로운 지식 창출을 통해 혁신을 이끄는 전문가 양성에 달려 있다. 신기술 개발과 산업고도화를 주도할 석박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강조되고 있다(임희진, 김소현, 박혜연, 김경호, 2016). 이러한 사회 수요에 부응하여 대학원은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대학원생을 독립된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김세련, 박인우, 최고은, 2020; 이주연, 정채윤, 윤혜주, 손민지, 홍아정, 2022).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학금이나 연구 공간과 같은 제도 및 인프라 확장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원생의 심리적 상황을 고려한 접근과 지원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다.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진학을 선택한 대학원생들이 새로운 학습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학위 과정 동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Laufer & Gorup, 2019),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는 동기 유지 전략을 세울 때 대학원생이 학습 과정에서 실감하는 심리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동기를 유지하는 심리적 속성은 학습경험에 대한 만족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Hegarty,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수준에서 학생의 학습 동기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탐구한 연구는 부족하다. 많은 스트레스를 내포하고 있는 환경에서 사람들의 심리적 기능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Schaefer, Coyne, & Lazarus, 1981). 사회적 지원은 특정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유형이나 내용이 다르고 개인이 가진 각각의 사회적 관계망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다(김미령, 2005). 따라서 대학원 교육 시스템에서 특수하게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자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학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은 사회화 관점이다(Gardner, 2008). 대학원 교육 시스템은 대학원생이 연구역량과 태도를 갖추어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Heath, 2002), 커뮤니티 내에서 연구 수행, 전공 수업 수강, 학술대회 참가, 협력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Pyhälto & Keskinen, 2012). 인지적 도제 차원에서 대학원 프로그램은 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배우고, 교수 및 동료 학생과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기회를 통해 학문 분야의 주변부에서 점차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Austin, 2002). 따라서 사회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지도교수나 동료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원생의 학습에서 긍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도교수와 동료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Devos et al., 2017; Greener, 2021; Mogaji, Adamu, & Nguyen, 2021; Zhao, Golde, & McCormick, 2007).

지도교수의 경우 논문과 관련한 피드백이나 멘토링이 대학원생의 학습 경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연구되어왔다(Makhamreh & Stockley, 2019). 나아가 관계적 특성에도 주목하고 있었는데(Bain, Fedynich, & Knight, 2011), Janssen, van Vuuren과 de Jong(2021)의 연구에서는 박사과정생과 지도교수 간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동료와의 팀워크나 원활한 의사소통, 연구문제를 공유하는 활동 또한 대학원생들의 학습 행동을 촉진하는(Stracke & Kumar, 2014) 주요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에 배태된 자원의 효과는 정보획득과 경력지원이 대표적이다(Seibert, Kraimer, & Liden, 2001). 더욱이 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중 직업 능력 개발이나 구직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았으며(Coulter, Goin, & Gerard, 2004), 네트워크의 가용성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Marmaros & Sacerdote, 2002). 이에 경력 및 인적 네트워크(Marmaros & Sacerdote, 2002; Mogaji, Adamu, & Nguyen, 2021; Schlosser, Knox, Moskovitz, & Hill, 2003)에 대한 강한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원 내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구성하였다. 정서 및 인지적 지원 측면에서 지도교수와 동료가 제공하는 지지는 대상에 따라 기능이나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지만, 경력 네트워크는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동일 기능으로 간주하여 제공 대상을 통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유효성은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데, 사회적 관계망의 고유 기능은 특정 맥락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갖는다(김미령, 2005). 교수의 전문적 지도나 사회적 지지, 동료 간 상호작용, 경력 네트워크는 대학원생의 심리상태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측면에서 대학원생의 성취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려는 시도는 미진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학업 성과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주요 변인으로 학습몰입과 웰빙에 주목하였다. 학습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는 몰입은 궁극적으로 기술, 지식, 전문성 개발과 같은 학업성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습 및 교육의 질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Trowler, 2010). 학습상황에서의 몰입은 자신과 학업 환경 간의 일치를 보고하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학업 만족과 지속으로 이어지게 만든다(Groen, 2021; Vekkaila, 2014). 몰입 수준이 높은 대학원생은 학업 환경에서 제공되는 학습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 & Bakker, 2002; Vekkaila, Pyhältö, & Lonka, 2013).

웰빙이 생산성 및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학원생의 균형 잡힌 삶은 고등교육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Schmidt & Hansson, 2018). 학위 과정을 무사히 완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과 긴 노동 시간은 필수적이라는 말이 스트레스 상황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일과 개인의 삶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Byrom, Dinu, Kirkman, & Hughes, 2020). 박사과정생의 56%가 스트레스, 불안, 피로, 소진과 관련한 문제로 중도 포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Anttila, Lindblom-Ylänne, Lonka, & Pyhältö, 2015), 주로 우선순위나 역할과 책임, 시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Martinez, Ordu,

Della Sala, & McFarlane, 2013). 시간 관리는 대학원생의 일과 삶의 균형에서 핵심 요소로, 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다른 삶과 관련된 활동에 소모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웰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Yusuf, Saitgalina, & Chapman, 2020).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 환경적 변인으로 대학원 교육 맥락에서 나타나는 관계 자원의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환경에서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교수 지지, 동료 지지, 경력 네트워크로 구성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집단 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학업 수행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원생들의 심리 속성 변인으로 학습몰입과 리라벨을 설정하고 잠재프로파일 하위 집단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 요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한 주요 가설로 지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개인의 인식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준다는 직접 효과와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완충 효과가 있지만(Buunk & Hoorens, 1992), 공통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웰빙을 증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존중받으며,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인식은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Demaray, Malecki, Davidson, Hodgson, & Rebus, 2005).

사회적 지지는 개념의 광범위성과 연구 수행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구성요소는 구조 및 기능적 영역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김미령, 2005; Lin, Ye, & Ensel, 1999). 구조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나 빈도, 강도, 다양성 등 관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Cohen & Syme, 1985; Thoits, 1995).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지원의 양은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이점과 비례할 가능성도 있지만, 관계가 갈등과 스트레스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 간 균형은 사람이나 상황,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를 수 있다(Schaefer, Coyne, & Lazarus, 1981).

기능적 사회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얻어지는 실질적 도움에 관한 것으로 내용과 자원에 초점을 둔다(김미령, 2005).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는 지지 자원의 객관적 특성보다 개인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Cohen & Hoberman, 1983).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네트워크와 달리 상호작용의 본질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관계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정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Schaefer, Coyne, & Lazarus, 1981). 사회적 지지는 지원을 제공받는 수혜자의 인지된 요구와 그러한 요구에 대한 제공자의 반응이 일치될 때 효과성을 가지며, 이는 관계에 대한 만족과 지속으로 나타난다(Shumaker & Brownell, 1984). 지원 효과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제공자의 행동에 대한 수혜자의 자기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House & Kahn, 1985) 수혜자가 인식한 만족감은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충족을 의미하므로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관계망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지지의 주요 원천이 되는 관계에는 가족, 교사, 직장 동료, 친구 등이 있으며(Malecki & Demaray, 2002), 학자들이 구분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평가적 지원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House, 1981). 정서적 지지는 신뢰, 공감, 존중, 경청과 같이 인간의 기본 사회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 있고, 도구적 지지는 금전적 지원이나 시간, 기술과 같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문제해결 방법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인지 체계에 개입하는 심리적 형태의 도움이다(House, 1981). 고등교육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는 주로 도구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이나 평가적 지원(인지, 지식,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Xerri, Radford, & Shacklock, 2018).

사회적 지지는 생활사건 범주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와 역할요구가 다르며 요구되는 지지의 정도도 다르다(박지원, 1985). 특히, 지원 효과는 문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지원의 도움이 되는 행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데(Schulz & Schwarzer, 2004), 예를 들어,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직장 내 관계에서 영향을 받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가정 및 친인척 관계에 의해 영향받는 것이다(LaRocco, House, & French, 1980). 즉 특정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지원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 맥락에서 대학원생의 지지 자원이 될 수 있는 관계의 원천과 그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지지원을 지도교수와 동료 학생으로 보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을 살펴보았다.

1) 지도교수의 사회적 지지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도제형과 코스웍형으로 나누어지며 우리나라는 교육과정과 지도교수의 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미국의 제도를 따른다(김승정, 2019). 코스웍을 마치기 위해서는 전공 수업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을 충족한 후 졸업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도를 받아야 하므로 대학원 교육 시스템 내에서 전공 및 지도교수의 역할은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는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논문지도가 핵심이다. 교수의 논문지도는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대학원생의 사회화, 학업적 정체성 확립, 학위 취득 기간, 만족도 등 대학원 전반의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Golde, 2000; Weidman & Stein, 2003). 대학원생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지도교수의 역할에

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접근성과 잦은 접촉 빈도,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Zhao, Golde, & McCormick, 2007). 논문지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교수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연구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절차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역할 행위가 강조된다.

대학원생의 심리적 적응 및 성장 차원에서 지도교수와의 관계 속성 또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행복과 심리적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내적동기를 유지하고 외적 행동으로 발현하도록 돕는 기제인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를 바탕으로 관계 속성을 규정하였다. Benlahcene, Awang-Hashim, Kaur와 Wan-Din(2022)은 자율성이 지원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에 따라 과제 활동을 선택하고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갖는다고 하였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은 개인의 기본심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만족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인지·정서적 자원을 만들어 몰입이나 흥미, 창의성, 전반적 삶의 만족도, 지속과 같은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 Deci, 2006).

유능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발현할 때 충족되는데,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은 학문적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게 한다(Ryan & Deci, 2002). 유능감에 대한 지지는 동기를 내재화하고 행동을 조절하면서, 능력 발휘의 기회를 찾게 하고 실제적으로 시도하도록 돕는다(이명희, 김아영, 2008).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나눔으로써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다(Ryan, 1995). 대학원생들은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지도교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arnes, Williams, & Archer, 2010). 이처럼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충족은 대학원생들의 학업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2) 동료의 사회적 지지

대학원생이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도교수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학문적 사회화 과정에서 동료들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학위 과정 전반에 걸쳐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행동 규범의 내재화는(Austin, 2002; Weidman & Stein, 2003) 학문공동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나 소속 전공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대학원생은 세미나, 연구 프로젝트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연구역량을 증진해 나가며(나승일 등, 2009),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연구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어 긍정적 연구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김세련, 박인우, 최고은, 2020).

조직 내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은 지식공유를 높이고 조직 효율성 및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incus, 1986). 실제 대학원생들은 프로젝트나 용역 과제와 같은 공동작업에 투입되면서,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외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 전이의 기회를 갖는다(Mendoza, 2007; Thune, 2009). 이러한 프로젝트 참여 수준은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동료나 선후배는 과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준다. 학생들이 전공 문화에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암묵적 지식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Golde, 2000).

3) 경력 네트워크

특정 교육 및 직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Rios-Aguilar & Deil-Amen, 2012).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개인 간 자원이 교환되며, 연결망에 배태되어 있는 자원의 주요 효과는 정보획득과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Seibert, Kraimer, & Liden, 2001). Marmaros와 Sacerdote(2002)의 연구에서는 교수, 동료 및 동문 네트워크에서 제공된 정보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네트워크의 가용성이 특정 대학에 입학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학원의 교육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대학원생의 학문적 요구를 분석한 Coulter, Goin과 Gerard(2004)는 직업적 능력 개발과 구직을 위한 교육 요구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Schlosser, Knox, Moskowitz와 Hill(2003)은 박사과정생은 전문 멘토가 직업적 역할 모델을 제시하거나 진로 및 개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실제 멘토와의 관계에 만족한 학생들은 멘토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논의하고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O'Meara 등(2014)은 STEM 분야 박사과정생의 경력 개발을 위해 진로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지지를 과업 지원, 경력 멘토링, 코칭, 동료의 지원과 같이 네 가지로 구성하여 직무 만족과 근무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경력 멘토링과 과업 지원이 직업 만족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칭과 과업 지원은 근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Winkowski, & Engdahl, 2007). 우정이나 격려를 포함한 동료의 지원보다는 경력에 관한 관심과 업무 역할을 제시해주는 경력 지원이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조직의 규칙이나 목표에 대해 알려주는 것 등과 같이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집단에 속한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나 동료로부터 제공받는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실재적 정보는 대학원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 지원은 대학원생의 동기부여, 졸업, 진로 설계에 중요하기 때문에(O'Meara et al., 2014)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결과요인

1)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학습상황에서 과제 해결이나 학습 활동에 빠져 온전히 과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신 과정과 행위를 한데 모으는 최상의 집중 경험이다(박성익, 김연경, 2006). 학습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학습자의 목적적 활동에 대한 몰입은 기술, 지식, 전문성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게 된다(Trowler, 2010). 이는 몰입경험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이 내재적 동기를 높여 성취 결과로 이어진다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는데(김아영, 탁하얀, 이채희, 2010), 학습 과정에서의 긍정적 정서 경험은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과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학습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이숙정, 2011). 대학원 환경에서도 학습몰입은 대학원생의 학업 과정에 대한 만족과 적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학업 지속과 성공을 예측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이론가들은 심리적 또는 비(非)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정 행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과 욕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Xerri, Radford, & Shacklock, 2018). 학습몰입의 영향요인에 대해 메타 분석을 수행한 연구에서는 학습몰입과 관련된 개인 외적 요인으로 교사의 지도 유형이 주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환경과 관련해서는 소속과 인정처럼 학습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수-학습 분위기나 또래 지지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김진아, 황연우, 2014). Xerri, Radford와 Shacklock(2018)도 교수-학생 관계와 동료 학생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 활동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주연, 정채운, 윤혜주, 손민지와 홍아정(2022)의 연구에서도 동료 지지가 대학원생의 학습몰입을 예측하는 강력한 설명 변인이었으며, 경력 개발과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 지도교수의 지도나 관계 속성이 몰입과 관련한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박사과정생의 학습몰입을 촉진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건설적이고 의도적인 지도와 대학원생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휘하고 개발하도록 하는 것, 학계 네트워킹과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다(Groen, 2021). 대학원생들의 몰입과 비몰입(disengagement)을 연구한 Vekkaila, Pyhältö와 Lonka(2014)는 학생들을 몰입하게 하는 도전적이고 인상적인 학습경험으로 학계에 참여하고, 연구역량을 개발하는 것, 학자로서 성장하는 것과 같이 학술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꼈던 경험을 강조한 반면, 자신이 소속된 학문공동체에서 불일치감이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고 느낀 경우 몰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rtanen과 Pyhältö(2012)의 연구에서도 박사과정생의 지각된 자율성과 소속감, 연구역량과 효능감이 학업몰입을 예측하는 핵심 요소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수의 지도와 조언, 건설적 피드백, 동료 및 선임 연구원과의 토론이 학습경험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 유능감, 유대감이 충족되었을 때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가 촉진되며, 성취도와 심리적 웰빙이 향상된다는 자기결정이론으로 설명된다(Deci & Ryan, 2008; Virtanen & Pyhäälä, 2012).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원생의 학습몰입에 지도교수와 동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도교수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 행동이 중요했으며, 학업 과정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을 발휘한 경험과 학업 공동체 내에서 지지받고 격려받음으로써 느끼는 유대감은 학습몰입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2) 리라벨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전이 이론(spillover theory)은 한 영역에서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영역에서의 태도와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으로(Crouter, 1984), 일-생활균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성윤지, 전인, 2018). Maras(2012)는 대학원생이 가져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 효과성과 웰빙(personal effectiveness and wellbeing)을 제시하였다. 대학원생에게 ‘일’은 학위 과정, 연구, 학문 분야에서의 경력 및 전문성 개발 활동 등 연구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포함하며, 삶의 영역은 대학원에서의 비학문적인 생활과 가족 및 사회생활 같은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Yusuf, Saitgalina, & Chapman, 2020).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심리적 웰빙과 관련한 요인으로, 학업 및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로서의 삶과 연구 이외의 삶 영역 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연구와 삶의 균형(Research-Life Balance; 이하 리라벨)을 제안하고 있다.

박사과정생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이는 박사과정 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대학원생들은 학생 신분이기도 하지만 조교, 직원, 부모, 배우자 등 여러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한정된 재정과 시간 내에서 다양한 역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Yusuf, Saitgalina, & Chapman, 2020). 실제 대학원생은 학업을 추구하는 것과 개인 생활 및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us, 2006).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복잡한 작업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생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Golde,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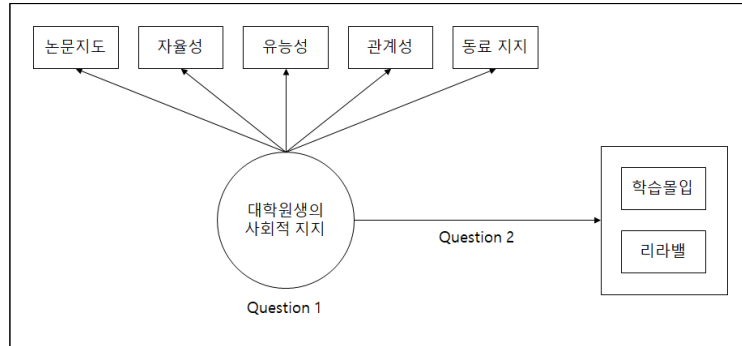
연구중심 대학에서 학문적 삶의 특권은 스트레스와 불균형한 생활을 수반하는 것을 당위로 여기지만, 과도한 업무와 일-생활 간 불균형이 학생과 조직의 효과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의 웰빙 유지와 관련된 전략은 중요하다(Schmidt & Hansson, 2018). Zahniser, Rupert와 Dorociak(2017)은 개인 웰빙과 전문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방적 자기 관리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전문적 지원, 전문성 개발, 삶의 균형, 인지적 자각, 일상의 균형과 같은 다섯 가지 하위요인이 대학원 교육에 내재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대학원생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대처 자원으로 또래 관계나 사회적 지원이 확인되었다(Schmidt & Umans, 2014). 지도교수와의 관계도 대학원생의 정신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윤희, 정주리, 2019). Graduate Assembly(2014)는 대학원생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재정적 뒷받침, 조언자와의 관계, 가치감과 소속감, 학문적 준비와 진행을 제시하였다(Yusuf, Saitgalina, & Chapman, 2020). 그 외에 박사과정생의 경우 연구 경험이나 사회활동, 전문성 및 경력 개발과 같은 요소들도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uniper, Walsh, Richardson, & Morley, 2012), 학업과 개인 역할 간 갈등 관리, 대처기술 개발과 같은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가 대학원생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ynes et al., 2012).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지지 자원과 개인의 웰빙 간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원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원생이 연구와 개인의 삶 영역 간 역할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 환경 변인으로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하였다.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원에서 지도교수와 동료에게 제공받는 도움에 대한 대학원생의 인식으로 정의된다. 하위 구성 요인으로는 지도교수의 사회적 지지, 동료의 사회적 지지, 경력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선행연구에서 개별 요인으로만 연구되었던 지도교수의 사회적 지지, 동료의 사회적 지지, 경력 네트워크를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 개념으로 구성함으로써 변인들의 개별 조합에 따라 집단별로 분류되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특성과 차이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각 프로파일 집단이 학습몰입, 리라벨과 같이 학업 수행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속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 모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 소재 A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A 대학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였고, 결측 데이터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문항은 필수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설문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단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총 4일에 걸쳐 488부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지도교수 문항에서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표본을 제외한 428개의 설문을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215명(50%), 이공계열이 147명(34%), 예술·체육계열이 52명(12%), 의학계열이 14명(3%)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196명(46%)이었고, 여자는 232명(54%)이었다. 전일제 대학원생은 363명(85%)이었으며, 비전일제 대학원생은 65명(15%)이었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118명(28%)이고,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310명(72%)이었다. 국내 국적의 대학원생은 307명(72%), 해외 국적의 대학원은 112명(26%)이었으며, 결측치가 9명(2%)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의 경우 대학원생의 관계적 자원에 기반하여 사회적 지지에 관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하고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 델파이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뒤 각 문항 내용의 정확성과 대표성에 대한 기술통계와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문항이 도출되었다. 문항은 4점(1:매우 그렇지 않다~4:매우 그러하다, 1점:매우 만족한다~4점: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다만 지도교수 문항에서는 설문 대상자인 대학원생의 심리적·인지적 부하

(cognitive demand)를 고려하여, “잘 모르겠음”을 첫 번째 선택지로 추가하였다. 개발된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7개 요인에서 총 23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요인별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통한 요인별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대학원 풍토 잠재프로파일 변인

지도교수의 사회적 지지(이하; 교수지지)는 논문지도,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지지로 구분된다. 논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세련, 박인우와 최고은(2020)이 개발한 연구지도 문항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 맞게 수정·개발하였다. 문항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잘 모르겠음” 선택지를 포함한 4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도움을 크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예시로는 “지도교수는 나의 논문지도 시, 연구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가 있다. 연구지도의 *Cronbach's α* 값은 .94이다.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선행연구에 따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뉘며, 각 요인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은 김세련, 박인우와 최고은(2020)과 전재은, 전하람과 이희영(2021)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나는 논문과 연구 진행 관련 나의 흥미와 선호를 지도교수에 말할 수 있다”). 유능성은 김세련, 박인우와 최고은(2020)이 개발한 척도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개발하였으며,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대학원생이 인지하는 유능성에 대한 지지 정도를 측정한다(예: “지도교수는 논문과 연구 진행에 대한 나의 아이디어나 의견에 경청한다”). 관계성은 김세련, 박인우와 최고은(2020), 전재은, 전하람과 이희영(2021)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지도교수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각 문항은 “잘 모르겠음” 선택지를 포함한 4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인식하는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별 *Cronbach α*는 자율성이 .93, 유능성이 .89, 관계성이 .89 이었다.

동료의 사회적 지지(이하; 동료 지지)는 김세련, 박인우와 최고은(2020)의 연구문화 요인을 수정·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전공 연구실 동료와의 지지적 관계를 의미한다.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실 동료와 만족스러운 지지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며, 문항 예시로는 “우리 전공 연구실은 대학원 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구성원들 간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다”가 있다. *Cronbach's α*는 .91이었다.

경력 네트워크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두 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4

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도교수나 연구실 동료가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정보나 도움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는 “우리 전공 연구실은 동료와 선후배를 통한 진로 취업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가 있다.

2) 결과 변인(distal outcome)

학습몰입은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2010)의 성인 학습몰입 척도 중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몰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다”가 있다. 학습몰입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리라벨(Research-Life Balance)은 김정운과 박정렬(2008)이 개발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중 3가지 문항을 이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와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에 치여 종종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게 된다”가 있다. 리라벨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혼합모형(mixture modeling)의 한 방법으로 집단의 분포가 여러 가지 분포로 혼합되어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잠재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특징을 가진 여러 집단을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가 이분형 변수일 경우 잠재계층모형(LCA: Latent Class Analysis) 분석에 해당하고, 연속형 변수일 경우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각 구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므로, 연속형 변수를 가정하였다. 나아가 잠재프로파일의 하위요인들을 Z 점수로 변환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도구로 Mplus 8.7(Muthén & Muthén, 2017)이 사용되었다. 추정 방법으로는 정규성 가정 위반이나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에도 강건(robust)한 MLR(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Muthén, 2004).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핵심은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모형적합도 평가 지수를 사용하며, 잠재프로파일 해석의 이론과의 적절성, 각 잠재프로파일의 전체 자료별 최소/최대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가 탐색적으로(exploratory)

결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해서 상대모형적합도, 정보지수, 분류의 질, 각 잠재프로파일의 표본 수와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한 각 방법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상대모형적합도의 경우 LMR-LRT 값(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o, Mendell, & Rubin, 2001)과 모수적 BLRT 값(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1987)이 활용되었다. 상대모형적합도는 G개 프로파일 모형과 G-1개 프로파일 모형이 비교되고, G-1개 프로파일 모형이 참이라는 영가설 하에서 우도비(Likelihood Ratio, LR) 차이에 대한 p 값이 도출된다. p 값이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유의하면 G개 프로파일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된다. BLRT 값과 LMR-LRT 값의 결론이 다를 때는, 일반적으로 BLRT 값을 따르는 것이 추천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정보지수(information criteria)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3),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값이 사용되었다. 정보지수는 해당 정보지수 값이 작을수록 자료에 대한 모형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좋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지수는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즉 추정되는 모형 모수가 증가할수록 정보지수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을 함께 고려하는 차원에서 정보지수 감소 폭이 점점 좁아지는 지점에서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세 번째로는, 분류의 질(Entropy)이 고려되었다.

Entropy 지수는 전체 표본에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대한 정확도를 제공한다. Entropy 지수는 0에 근접할수록 추정된 프로파일의 분류가 정확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프로파일의 분류가 정확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Entropy 지수가 .80 이상일 때는 90% 이상의 응답자가 제대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60 이하의 경우는 적당한 수준의 분류를, .40 이하의 분류는 낮은 분류를 나타낸다(Clark & Muthén, 2009). 잠재프로파일의 크기가 전체 표본에 비해서 지나치게 작으면 해당 잠재프로파일은 가짜로(spurious) 발생되었을 확률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잠재프로파일별 표본이 전체 표본의 5% 이상인 경우일 때,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로 결정하였다.

논문지도 및 지도교수 지지와 동료 지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추정한 후에는 이러한 잠재프로파일별 결과변인(distal outcome)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Asparouhov와 Muthén(2014a)이 제안한 측정모형과 결과변인 검증을 동시에 분석하는 3-step 모형을 사용하였다. 결과변인 차이 검증을 위해서는 잠재프로파일별 카이제곱 검증을 사용하여 이 연구와 같이 연속형 변수에 추천되는 BCH 방법이 활용되었다(Asparouhov & Muthén, 2014b:15).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료의 기본 구조와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분석이 시행되었다. 상관분석을 통한 변인 간 경향성은 먼저 리라벨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정적 상관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라벨의 경우 지도교수의 사회적 지지 중 관계성과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지도교수 사회적 지지 요인 중 논문지도와 자율성, 유능성은 서로 모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관계성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동료의 사회적 지지와 경력 네트워크는 지도교수 관련 변인과 중간 정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몰입은 지도교수의 사회적 지지, 동료의 사회적 지지, 리라벨 모든 요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동료의 사회적 지지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표 IV-1> 참조).

<표 IV-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인	M	SD	1	2	3	4	5	6	7	8
1 논문지도	3.45	.70	-							
2 교수지지: 자율성	3.51	.61	.80**	-						
3 교수지지: 유능성	3.48	.59	.81**	.85**	-					
4 교수지지: 관계성	3.49	.63	.76**	.78**	.78**	-				
5 동료 지지	3.19	.63	.50**	.56**	.56**	.50**	-			
6 경력 네트워크	2.81	.78	.55**	.51**	.46**	.54**	.06	-		
7 학습몰입	3.06	.62	.38**	.39**	.39**	.35**	.45**	.38**	.11**	-
8 리라벨	2.74	.70	-.06	-.04	-.05	-.11*	.00	.00	-	

* $p < .05$, ** $p < .01$

2.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교수 지지, 동료 지지, 경력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모형적합도, 정보지수, 분류의 질, 그리고 잠재프로파일 분류율이 분석되었다. <표 IV-2>에 제시된 것처럼 각 평가 지수에 따라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는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지수의 경우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류의 질(Entropy)의 경우 모든 잠재프로파일이 90%를 넘었으며, 잠재프로파일이 네 개일 때 .988로 가장 높은 값이었다. 상대모형적합도에서는 LMR-LRT와 BLRT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BLRT 결과가 선호됨을 고려하면, 정보지수와 마찬가지로 잠재프로파일 수가 늘어날

수록 더 적합한 잠재프로파일 수로 판단된다. 그러나 잠재프로파일 분류율을 참고했을 때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네 개 이상일 경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잠재프로파일의 표본 수가 5%를 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모형적합도, 정보지수, 분류의 질과 잠재프로파일 분류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IV-2〉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

프로파일	정보지수		분류질 Entropy	상대모형비교			잠재프로파일 분류율(%)					
	AIC	BIC		LMR-LRT	BLRT		1	2	3	4	5	6
1	7210	7259	-	-	-		100					
2	5996	6073	.937	.05	0		40	60				
3	5263	5368	.976	.47	0		5	58	37			
4	5053	5187	.990	.01	0		58	5	1	36		
5	4874	5036	.963	.42	0		1	34	5	10	50	
6	4746	4937	.968	.40	0		1	5	8	29	7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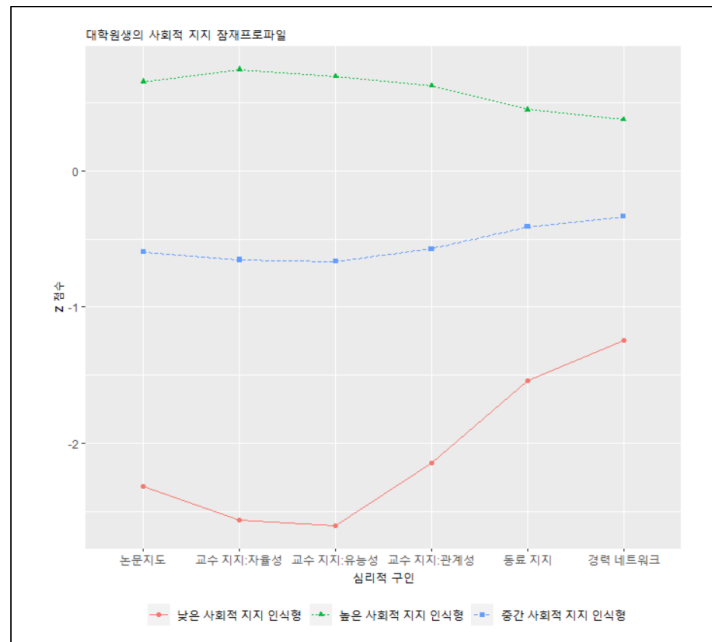
3. 잠재프로파일 유형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의 잠재프로파일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 IV-3>, <그림 IV-1>과 같이 각 잠재집단의 분류율과 추정 평균을 제시하였다. 계층별로 패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계층 간에는 전반적으로 수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프로파일 패턴 특성과 계층 간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명명하였다.

프로파일1에는 전체 5%가 이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 패턴 특성을 살펴보면 잠재프로파일의 하위요인들의 Z 점수의 평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도교수의 사회적 지지에 비하여, 동료 지지와 경력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집단은 대학원 학습 과정에서 지도교수보다는 선·후배나 동료 관계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유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하위요인들의 특성에 따라 이 집단은 ‘낮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2는 전체 56%로 가장 많은 표본을 포함하며, 지도교수와 동료, 경력 네트워크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이고 있어, 대학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3의 경우 전체 약 38%의 학생 표본을 포함하며, 지도교수 지지와 동료 지지, 경력 네트워크 지원 측면에서 평균 수준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프로파일과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에 있으므로 대학원에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평균인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IV-3〉 잠재프로파일별 대학원 풍토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프로파일 1: 낮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 (5%)		프로파일 2: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 (56%)		프로파일 3: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 (38%)	
	M	SD	M	SD	M	SD
논문지도	-2.32	.83	.65	.36	-.60	.73
교수지지: 자율성	-2.56	.83	.74	.23	-.65	.44
교수지지: 유능성	-2.61	1.11	.69	.35	-.67	.45
교수지지: 관계성	-2.14	1.04	.62	.46	-.57	.67
동료 지지	-1.54	.88	.45	.88	-.41	.74
경력 네트워크	-1.25	.57	.37	.90	-.33	.87



〈그림 IV-1〉 잠재프로파일별 하위요인별 평균 패턴

4. 잠재프로파일별 결과 변인의 차이 검증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유형별로 결과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IV-4>에 제시된 것처럼, 결과변수에 대한 카이제곱 차이 검증 결과를 보면 잠재프로파일 집단 간에 학습몰입과 리라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의 경우 모든 잠재프로파일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파일2: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M=3.26$)’이 ‘프로파일3: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M=2.82$)’

이나 ‘프로파일1: 낮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M=2.49$)’에 비해 학습몰입의 평균이 높았다. 리라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프로파일2: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M=2.67$)’과 ‘프로파일3: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M=2.86$)’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각 프로파일의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IV-4〉 잠재 프로파일의 결과 변인 차이 검증 결과

변인	통계치	낮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	χ^2	사후검증(집단)
학습몰입	<i>M</i>	2.49	3.26	2.82	7.18***	높은> 중간 > 낮은
	<i>SD</i>	.18	.04	.04		
리라벨	<i>M</i>	2.68	2.67	2.86	7.25*	중간 > 높음 = 낮은
	<i>SD</i>	.13	.05	.05		

* $p < .05$, *** $p < .001$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적응적이고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설명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원 맥락에서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요인을 구성하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나타난 프로파일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심리 환경 자원에 대한 인식 특성이 대학원생의 학습몰입이나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몰입과 리라벨을 결과 변인으로 설정하고 프로파일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된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의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낮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 세 집단이 도출되었다. 각 집단은 수준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패턴 특성에 있어서 ‘낮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은 전반적 평균이 낮았으나 상대적으로 동료 지지와 경력 네트워크는 높게 인식하는 반면 지도교수 요인은 낮게 인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은 중간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평이한 패턴을 보고하였으며,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은 전반적으로 지지 자원을 높게 인식하는 특성을 보였다. 대학원 사회적 관계망에서 제공되는 지원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만족하는 집단의 경우 지도교수와 동료, 경력 네트워크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상호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의 경우 동료 및 경력 네트워크와 지도교수의 사회적 지지가 상반되는 특징을 보였다. 지원인식이 낮은 집단은 동료 및 경력 네트워크와 지도교수로부터 제

공받는 도움을 상반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은 요구하는 지원과 제공되는 지원 사이의 불일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 수준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 네트워크에 관한 지원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대학원 진학목적이 네트워크 형성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원 요구(기대)와 진학 동기에 관해서도 살펴본다면 유의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류된 각 프로파일 집단별로 결과변인에 대한 예측 양상을 확인한 결과, 학습몰입과 리라벨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들의 학습몰입은 ‘낮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보다는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보다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대학원생이 교수나 동료, 경력 네트워크로부터 받는 지원이나 관계의 질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교수의 정서적 지원이나 관계의 질, 동료 학생의 지지적 태도가 학습 행동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이주연, 정채윤, 윤혜주, 손민지, 홍아정, 2022; Cockrell & Shelley, 2011; van Rooij, Fokkens-Bruinsma, & Jansen, 2021; Xerri, Radford, & Shacklock, 2018). 대학원생들의 학습몰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설명 변인으로 교수와 동료의 지지 자원에 대한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대학원은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활동이나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와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 경력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무적으로 배정된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시간 외에도 학습개선이나 심리적 적응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면담을 운영하거나, 전공 내에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업 적응을 돕는 동료 멘토링을 운영하거나 졸업 선배와의 매칭 또는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협력적이고 지지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리라벨은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과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보다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이 연구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심리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대학원 관계망을 통해 제공받는 도움이 기대 이상이거나 지원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경우 연구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사가 자신을 믿고 지원한다는 인식은 직원으로 하여금 일종의 책임 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역할 내외의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차동욱, 홍권표, 장제욱, 박성현, 강금원, 2012). 유사하게 이종찬(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교환이론에 따라 상사의 개인적 지지나 인정을 통해 호의를 느낀 구성원은 이에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식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책임 이상으로 헌신하게 된다고 하였다. 교수와 동료에게 높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대학원생은 기대나 책임 의식을 느껴 주어진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후에는 심리적

주인의식이나 교환관계와 같이 지원인식과 리라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수를 추가로 탐색함으로써 심리적 기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프로파일 세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평균 차이의 절댓값 크기가 해석적으로 의미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도교수 지지와 동료 지지를 낮게 인식한 집단(프로파일1)의 리라벨 평균이 다른 집단 평균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지도교수 지지와 동료 지지를 높게 인식한 집단보다 중간으로 인식한 집단이 연구와 삶의 균형을 조금 더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리라벨이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고려하면 교수나 동료, 경력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인식과 관계없이 이 연구에서 분석된 대학원생 표본은 대체로 연구와 삶의 균형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리라벨은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Beasy, Emery와 Crawford(2021)의 연구에서 대학원생은 자신의 웰빙이 교육 시스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이 연구와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좌절되는 것이다. 아울러 웰빙 수준이 낮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이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Bore, Pittolo, Kirby, Dluzevska, & Marlin, 2016; Cooke, Bewick, Barkham, Bradley, & Audin, 2006), 대학원생의 일과 삶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지지 자원뿐 아니라 장학금 제도 및 재정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학생들의 웰빙을 지원하는 제도적 분위기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원생들의 학업과 심리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 환경 변인인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람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여 하위속성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 유형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결과 변인과의 영향 관계 분석을 통해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실무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심리 자원 변인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리라벨을 제시함으로써 탐색적 시도를 이루었다는 데 함의를 갖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점도 존재한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학원 환경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 그 특성에 기반하여 구성요소를 채택하였지만, 사회적 지지가 관계에 기반한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기대와 실제 제공되는 지원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식된’ 사회적 지지가 갖는 자기보고식 응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지 제공자의 지원인식에 관한 응답을 동시에 조사하거나 지원 내용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경력 네트워크를 정보적 지지로 보고 제공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각 대상이 제공하는 지원 내용의 일부로 편입하여 대상에 따른 정서, 도구, 정보, 평가 등의 지원 유형을 살펴본다면 대학원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을 탐색하여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원 특성에 따라 교육 수요자 즉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목적이 다르고(차경환, 김정현, 이희수, 김동민, 김혜영, 2014),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운영되는 비율도 다르게 나타난다(김세련 등, 2020). 예를 들면, 일반대학원은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지만,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은 실천적 이론이나 실무 위주의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박윤성, 2004)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학원 특성에 따라서 지도교수나 동료 지지의 중요성을 다르게 인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 연구가 수행된다면 대학원생의 학업적 지원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령 (2005).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2(1), 99-121.
- 김세련, 박인우, 최고은 (2020). 일반대학원 교육만족도 요인 모형에 대한 실증적 탐색. *교육방법연구*, 32(3), 487-510.
- 김승정 (2019).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상호작용과 지도 유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7(3), 59-82.
-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 (2010).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4(1), 39-59.
- 김은영, 김정기, 최승애, 남태현 (2016). 대학 (원) 생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97-118.
- 김정운, 박정열 (2008).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여가학연구*, 5(3), 53-69.
- 김진아, 황연우 (2014). 학습몰입의 내, 외적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1(8), 49-78.
- 나승일, 박희철, 김연정, 장규선, 장현진, 이은경 (2009). 산업교육분야 전공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형성 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3), 87-121.
- 박성익, 김연경 (2006).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요인, 몰입수준,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 탐구. *열린교육연구*, 14(1), 93-115.
- 박윤성 (2004). 우리나라 大學院 制度에 관한 考察.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윤지, 전인 (2018). 장시간 노동의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 직무소진의 매개효과와 일-생활균형 만족의 조절효과.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624-644.
- 성윤희, 정주리 (2019). 지도교수와의 작업동맹과 이공계 대학원생의 우울 간의 관계: 공학전문가 목표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809-825.

- 유지원 (2011). 학습자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 심리적 중재 요인, 사회적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숙정 (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이종찬 (2009). 상사의 배려행동, 상사-부하 간 교환관계가 조직시민행동 및 성과평가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2(5), 2979-2998.
- 이주연, 정채윤, 윤혜주, 손민지, 홍아정 (2022). 랜덤 포레스트 회귀를 활용한 일반대학원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교육학연구*, 60, 145-175.
- 임희진, 김소현, 박혜연, 김경호 (2016). 연구중심대학 석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3), 379-408.
- 전재은, 김민선 (2021).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 동기와 학업지속 의도의 관계: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원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59(2), 129-157.
- 전재은, 전하람, 이희영 (2021).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지도 유형과 대학원생의 학업중단 의사: 전공계열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7(1), 407-433.
- 차경환, 김정현, 이희수, 김동민, 김혜영 (2014). 교육대학원생의 만족도 및 요구에 기초한 A 대학 교육대학원의 진로 모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1), 71-91.
- 차동욱, 홍권표, 장제욱, 박성현, 강금원 (2012). 상사지원인식이 역할내 성과와 역할외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398-410.
- Akaike, H. (1973). Maximum likelihood identification of Gaussian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s. *Biometrika*, 60(2), 255-265.
- Anttila, H., Lindblom-Ylänne, S., Lonka, K., & Pyhältö, K. (2015). The added value of a PhD in medicine--PhD students' perceptions of acquired compet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2), 172-180.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a).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b).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l. *Mplus Web Notes*, 21(2), 1-22.
- Austin, A. (2002).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of faculty: Graduate school as socialization to the academic career.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3, 94-122.

- Bain, S., Fedynich, L., & Knight, M. (2011). The successful graduate student: A review of the factors for success. *Journal of Academic and Business Ethics*, 3, 1-9.
- Barnes, B. J., Williams, E. A., & Archer, S. A. (2010). Characteristics that matter most: Doctoral students' percep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advisor attributes. *Nacada Journal*, 30(1), 34-46.
- Beasy, K., Emery, S., & Crawford, J. (2021). Drowning in the shallows: An Australian study of the PhD experience of wellbeing.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26(4), 602-618.
- Benlahcene, A., Awang-Hashim, R., Kaur, A., & Wan-Din, W. Z. (2022). Perceived autonomy support and agentic engagement among Malaysian undergraduates: the mediatory role of personal best goals.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46(1), 33-45.
- Bore, M., Pittolo, C., Kirby, D., Dluzewska, T., & Marlin, S. (2016).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a sample of Australian undergraduate students.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35(5), 869-880.
- Brus, C. P. (2006). Seeking balance in graduate school: A realistic expectation or a dangerous dilemma?.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2006(115), 31-45.
- Buch, R. (2015). Leader - member exchange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organization exchange and affective commit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6(1), 59-79.
- Buunk, B. P., & Hoorens, V. (1992). Social support and stress: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and social-exchange process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445-457.
- Byrom, N. C., Dinu, L., Kirkman, A., & Hughes, G. (2020). Predicting stress and mental wellbeing among doctoral researchers. *Journal of Mental Health*, 1-9.
- Clark, S.,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https://www.statmodel.com/download/relatinglca.pdf>에서 인출
- Cockrell, C. N., & Shelley, K.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upport systems and intended persistence in doctoral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12(4), 469-48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oke, R., Bewick, B., Barkham, M., Bradley, M., & Audin, K. (2006). Measuring, monitoring and manag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4(4), 505 - 517.

- Coulter, F. W., Goin, R. P., & Gerard, J. M. (2004). Assessing graduate students' needs: The role of graduate student organizations.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28(1), 15-26.
- Coyle-Shapiro, J. A. M., & Conway, N. (2004). The employment relationship through the lens of social exchange theory. In J. Coyle-Shapiro, L. M. Shore, M. S. Taylor, & L. E. Tetrick (Eds.), *The employment relationship: Examining psychologic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pp. 5-28). Oxford University Press.
- Crouter, A. C. (1984). Spillover from Family to Work: The Neglected Side of the Work-Family Interface. *Human Relations*, 37(6), 425-442.
- Deci, E. L., & Ryan, R. M. (2008). Facilitating optimal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life's domains. *Canadian Psychology / Psychologie canadienne*, 49(1), 14-23.
- Demaray, M. K., Malecki, C. K., Davidson, L. M., Hodgson, K. K., & Rebus, P. J.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udent adjustment: A longitudinal analysis. *Psychology in the Schools*, 42(7), 691-706.
- Devos, C., Boudrenghien, G., Van der Linden, N., Azzi, A., Frenay, M., Galand, B., & Klein, O. (2017). Doctoral students' experiences leading to completion or attrition: A matter of sense, progress and distres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32(1), 61-77.
- Gardner, S. K. (2008). Fitting the mold of graduate school: A qualitative study of socialization in doctoral education. *Innovative Higher Education*, 33(2), 125-138.
- Golde, C. M. (2000).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Student descriptions of the doctoral attrition proces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3(2), 199-227.
- Graduate Assembly. (2014). Graduate Student Happiness and Well-Being Report 2014. <http://ga.berkeley.edu/wellbeingreport>에서 인출
- Greener, S. L. (2021). Non-supervisory support for doctoral students in business and management: A critical frie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9(2), 1-9.
- Groen, J. (2021). Student engagement in doctoral programs: Principal factors that facilitate learning.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2021(167), 77-84.
- Harris, J. I., Winskowski, A. M., & Engdahl, B. E. (2007). Types of workplace social support in the prediction of job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6(2), 150-156.
- Haynes, C., Bulosan, M., Citty, J., Grant-Harris, M., Hudson, J., & Koro-Ljungberg, M. (2012). My world is not my doctoral program... or is it?: Female students' perceptions of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7, 1-17.
- Heath, T. (2002). A quantitative analysis of PhD students' views of supervision.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21(1), 41-53.

- Hegarty, N. (2011). Adult learners as graduate students: Underlying motivation in completing graduate programs. *The Journal of Continuing Higher Education*, 59(3), 146-151.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Addison-Wesley.
- House, J. S., & Kahn, R. L.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83-108). Orlando, FL: Academic Press.
- Janssen, S., van Vuuren, M., & de Jong, M. D. (2021). Sensemaking in supervisor-doctoral student relationships: revealing schemas on the fulfillmen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6(12), 2738-2750.
- Juniper, B., Walsh, E., Richardson, A., & Morley, B. (2012). A new approach to evaluating the well-being of PhD research students.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37(5), 563-576.
- LaRocco, J. M., House, J. S., & French Jr, J. R. (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02-218.
- Laufer, M., & Gorup, M. (2019). The invisible others: Stories of international doctoral student dropout. *Higher Education*, 78(1), 165-181.
- Lin, N., Ye, X., & Ensel, W. M.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344-359.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akhamreh, M. A., & Stockley, D. (2019). Mentorship and well-being: Examining doctoral students' lived experiences in doctoral supervision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oring and Coaching in Education*, 9(1), 1-20.
- Malecki, C. K., & Demary, M. K. (2002). Measuring perceived social support: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 (CASS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1), 1-18.
- Marmaros, D., & Sacerdote, B. (2002). Peer and social networks in job search. *European Economic Review*, 46(4-5), 870-879.
- Martinez, E., Ordu, C., Della Sala, M. R., & McFarlane, A. (2013). Striving to obtain a school-work-life balance: The full-time doctoral student.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8, 39-59.
- Matas, C. P. (2012). Doctor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REDU: Revista de Docencia Universitaria*, 10(2), 163-191.
- McLachlan, G. J. (1987). On bootstrapping the 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 for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C (Applied Statistics)*, 36(3), 318-324.
- Mendoza, P. (2007). Academic capitalism and doctoral student socialization: A case study. *The Journal of*

- Higher Education*, 78(1), 71-96.
- Mogaji, E., Adamu, N., & Nguyen, N. P. (2021). Stakeholders shaping experiences of self-funded international PhD students in UK business schoo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9(3), 1-15.
-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Sage.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7). *Mplus user's guide* (7th ed.). Muthén & Muthén.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O'Meara, K., Jaeger, A., Eliason, J., Grantham, A., Cowdery, K., Mitchall, A., & Zhang, K. J. (2014). By design: How departments influence graduate student agency in career advanc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9, 155-179.
- Pincus, J. D. (1986). Communication Satisfaction & job Performa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2(3), 396-419.
- Pyhältö, K., & Keskinen, J. (2012). Exploring the fit between doctoral students' and supervisors' perceptions of resources and challenges vis-à-vis the doctoral journey.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7, 395-414.
- Reinboth, M., Duda, J. L., & Ntoumanis, N. (2004). Dimensions of coaching behavior, need satisfaction, and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fare of young athletes. *Motivation and Emotion*, 28(3), 297-313.
- Rios-Aguilar, C., & Deil-Amen, R. (2012). Beyond getting in and fitting in: An examination of social networks and professionally relevant social capital among Latina/o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ispanic Higher Education*, 11(2), 179-196.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3), 397-427.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6). Self regulation and the problem of human autonomy: Does psychology need choice, self determination, and will?.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57-1586.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4), 381-406.

-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ález-Romá, V., & Bakker, A. B. (2002).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71-92.
- Schlosser, L. Z., Knox, S., Moskovitz, A. R., & Hill, C. E. (2003).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graduate advising relationships: The advise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78-188.
- Schmidt, M., & Hansson, E. (2018). Doctoral students' well-being: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13(1), 1-141.
- Schulz, U., & Schwarzer, R. (2004). Long-term effects of spousal support on coping with cancer after surge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716-732.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461-464.
- Seibert, S. E., Kraimer, M. L., & Liden, R. C. (2001).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19-237.
- Shumaker, S. A., & Brownell, A. (1984). Toward a theory of social support: Closing conceptual gaps.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11-36.
- Stracke, E., & Kumar, V. (2014). Realising graduate attributes in the research degree: The role of peer support groups.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19(6), 616-629.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53-79.
- Thune, T. (2009). Doctoral students on the university - industry interfa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Higher Education*, 58(5), 637-651.
- Trowler, V. (2010). Student engagement literature review. *The Higher Education Academy*, 11(1), 1-15.
- van Rooij, E., Fokkens-Bruinsma, M., & Jansen, E. (2021). Factors that influence PhD candidates' success: The importance of PhD project characteristics.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43(1), 48-67.
- Vekkaila, J. (2014). Doctoral student engagement: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students and scholarly communit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elsinki]. <http://urn.fi/URN:ISBN:978-952-10-9524-5>
- Vekkaila, J., Pyhältö, K., & Lonka, K. (2013). Focusing on doctoral students' experiences of engagement in thesis work. *Frontline Learning Research*, 1(2), 12-34.
- Vekkaila, J., Pyhältö, K., & Lonka, K. (2014). Engaging and disengaging doctoral experiences in the behavioural sciences. *International Journal for Researcher Development*, 5(1), 33-55.
- Virtanen, V., & Pyhältö, K. (2012). What Engages Doctoral Candidates in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to Doctoral Studies?. *Psychology*, 3(12), 1231-1237.
- Weidman, J. C., & Stein, E. L. (2003). Socialization of doctoral students to academic norm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4(6), 641-656.

- Xerri, M. J., Radford, K., & Shacklock, K. (2018). Student engagement in academic activities: A social support perspective. *Higher Education*, 75(4), 589-605.
- Yusuf, J. E., Saitgalina, M., & Chapman, D. W. (2020). Work-life balance and well-being of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Public Affairs Education*, 26(4), 458-483.
- Zahniser, E., Rupert, P. A., & Dorociak, K. E. (2017). Self-care in clinical psychology graduate training.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11(4), 283-289.
- Zhao, C. M., Golde, C. M., & McCormick, A. C. (2007). More than a signature: How advisor choice and advisor behaviour affect doctoral student satisfaction.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31(3), 263 - 281.

국문초록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학습몰입과 리라밸의 차이

정 채 윤¹ · 홍 아 정² · 이 주 연³

¹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²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³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연구전담교수

연구목적: 이 연구는 지도교수 지지와 동료 지지, 경력 네트워크로 구성된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의 하위 집단을 탐색하고, 리라밸(Research-Life Balance)과 학습몰입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수도권 소재 A 대학의 대학원생 488명으로부터 수집된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변인에 대해 Mplus의 BCH 방법을 이용하여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세 가지 프로파일 유형이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다. 도출된 프로파일은 대학원생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낮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학습몰입은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과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에서,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과 낮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습몰입이 높았다. 리라밸은 중간 사회적 지지 인식형과 높은 사회적 지지 인식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교육에서 대학원생의 학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대학원생, 지도교수 지지, 동료 지지, 학습몰입, 리라밸(연구-삶 균형)

투고일: 2022. 07. 31. / 심사일: 2022. 08. 05. / 심사완료일: 2022. 09. 20.